

# 스키장·예배·와인모임...유명인들 '경솔한 인증샷' 반복

이승철, SNS에 스키장 방문 사진 올려  
조혜련, 교회 예배·윤미향, 와인 모임  
"일상 포기 이들 많은데"...비난 이어져  
전문가 "대중의 관심 욕구에 쫓겨 행동"

최근 계속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업이 끊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연예인 등 일부 공인들이 SNS에 적절치 못한 '인증샷'을 올려 빈축을 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계재 후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나서야 게시물을 삭제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평소 즐겨왔던 생활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물지각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가수 이승철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키장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여러 장 공개했다. 빨간색 스키복에 고글을 착용하고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이씨는 "나의 스키 선생님, 올해는 꼭 내 마음에 드는 스키를 할

거야" 등의 문구를 적었다. 이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같은 게시물을 올린 이후 그를 향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정부가 '인원 제한' 등을 조건으로 스키장 영업을 허용한 만큼 스키장을 방문한 이씨의 행동이 방역 수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네티즌들은 "남들은 다 집에 있는데, 굳이 이 시국에 스키장에 간 사진을 올려야 하느냐" 등의 글들을 올리며 이씨의 행동을 비난했다. 개그우먼 겸 배우 조혜련씨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교회 예배 인증샷을 올렸다가 못매를 맞았다. 조씨는 지난 3일 인스타그램에 예배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림, 복된 주일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 종교

시설은 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영상 촬영 등을 위해 20명 이하로는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인증샷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조씨는 지난 4일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어제 예배 후 찍은 인증샷으로 인해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평소 친분이 있는 집 근처 작은 교회의 목사님께서 비대면 예배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셔서 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예배 도중 지자체 공무원의 점검도 있었으나 어떤 문제나 지적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각별히 더 주의하고, 정부 지침도 잘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지인들과 함께 한 와인 모임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사진과 함께 "길원욱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

서 정부 차원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논란이 계속되자 윤 의원은 역시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누는 게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광복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사람과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생기는 등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진을 빨리 올리고 싶다는 생각에 쫓겨 윤리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 교수는 "스키장의 경우 아무리 제한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직장 등 이유로 바로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이라며 "가는 건 괜찮지만 굳이 그걸 SNS에 올렸어야 하나, 공인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고 자중해주시기를 바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연예인들이 모피 반대운동, 동물학대 반대 등 사안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등 숭선수



밤을 한다"며 "연예인 등 공인들이 조금 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 광주 효정요양병원발 확진자 16명 추가...누적 115명

집단 감염원 중 최다...이송 치료·주기적 검사  
광주에서 효정요양병원 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총 115명이 감염돼 집단 감염원 중 최다 규모다. 10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효정요양병원 입원 환자 12명과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2명 등 16명이 코로나19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 1341~1356번째 환자로 분류됐다. 효정요양병원에서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총 115명(차 연쇄 감염 포함)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 집단 감염 발생 현황 중 최다 규모다. 시 방역당국은 효정요양병원 확진 환자 78명 중 66명과 확진 직원 25명 중 20명을 다른 시설로 옮겨 치료하

고 있다. 나머지 환자와 직원들도 이송할 예정이다. 또 효정요양병원 환자와 직원이 각각 291명과 152명에 달하는 만큼, 사흘 주기로 집단 검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광주 지역 유형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에버그린 요양원 75명 ▲정사교회 관련 72명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종교시설) 관련 65명 ▲광주 양동 철물점 관련 12명 ▲전북 김장모임 관련 7명으로 조사됐다.

### 서울대 등록금 올해도 안올린다...4년 연속 동결 결정

서울대학교가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모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4년 연속 이뤄진 등록금 동결이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021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결정이 이뤄졌다. 심의 결과는 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논의 과정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 전남 해역 저수온 경보·주의보 '양식장 동해 우려'

전남도 종합상황실·현장대응반 운영

강한 한파와 폭설로 전남도내 해역에 저수온 경보·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장 동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함평만 해역은 저수온 경보가, 목포 달리도부터 해남 송지면 남단, 고흥 득량만과 여수 가막만은 저수온 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남도는 저수온 대책 종합상황실과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현장대응반은 저수온 해역의 어가들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양식장 관리요령을 지도하는 한편 어업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

해 수온측정 결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도 한파가 지속돼 전남의 내만을 중심으로 저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식어가들은 어류 등 양식생물의 생리변화로 인한 대량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해상가두리는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그물 깊이를 3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영양제 등을 투입해 면역력을 강화해줘야 한다. 육상양식장은 폭설로 인해 시설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야 하고 보온장비를 가동해야 하며 정전에 대비한 비상유류도 확보해야 한다. 김정환기자



쌓였던 눈이 녹으며 발생된 오타쿠가 양식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강한 한파와 폭설로 당분간 저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양식장 동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어가들은 주의해야 한다"며 "저수온 대응을 위해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예찰 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